

기업 1인당 노동비용 월 585만원...전년대비 8.2% 증가

고용부,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585만원...전년비 8.2%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비용 67.3%...격차 다시 커져

지난해 국내 기업이 임금과 4대 보험료, 복지비 등 근로자 1명에게 쓴 비용이 월평균 58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간 축소됐던 상여금과 성과급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명 이상을 둔 회사법인 기업체 3500여곳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85만원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540만8000원)보다

8.2%(44만2000원) 증가한 것이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급여와 성과급, 상여금 등 '직접노동비용'과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퇴직금, 교통비, 식대, 교육훈련비 등 '간접노동비용'으로 나뉜다. 지난해 직접노동비용은 46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정액·초과 급여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382만3000원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숙박·음식 등 서비스

업 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상승한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여금과 성과급은 8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22.9% 급증했다. 코로나19로 2019년과 2020년 축소됐던 기저 효과와 지난해 제조업과 금융·보험 등의 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간접노동비용은 12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했다. 퇴직급여 등 비용은 5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2.1% 늘었다. 4대 보험료 등 비용은 42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5.9%, 교통비와 식대 등 복지비는 24만9000원으로 6.5% 증가했다. 노동비용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이 전체의 79.1%, 간접노동비용은 20.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에 속하는

'300인 미만'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47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71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0.1% 늘었다. 다만 매해 조금씩 줄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비용 격차는 다시 커졌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의 67.3% 수준으로 전년(70.3%)보다 3.0%포인트 축소됐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수준은 2018년 67.8%→2019년 68.2%→2020년 70.3%로 확대된 바 있다. 특히 간접노동비용 부문에서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 지난해 300인 미만의 간접노동비용은 88만8000원으로 300인 이상(163만2000원)의 54.4% 수준이었다. 간접노동비용 중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훈련 비용으로, 300인 미만(6000원)은 300인 이상(3만4000원)의 16.9%에 그쳤다. 직접노동비용은 300인 미만이 390만7000원으로 300인 이상(549만8000원)의 71.1%로 집계됐다. 산업별 노동비용은 금융·보험업이 1057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가스 공급업(919만6000원), 제조업(662만6000원) 순이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임대서비스업은 301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고용부가 매년 실시하는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파악해 기업 활동이나 근로자 복지 증진 등 고용노동정책 입안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쿠첸, 울스텐 초음파 가습기 출시...완전 분리형 통세척

깨끗한 스테인리스 재질...열탕 소독 가능

주방가전기업 쿠첸은 건조한 겨울철 스테인리스 재질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울스텐 초음파 가습기'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스텐 초음파 가습기는 스테인리스 수조통이 내장돼 플라스틱 물통을 사용하는 일반 초음파 가습기보다 위생적이다. 완전 분리형 구조로 쉽고 간편한 통세척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내장된 스테인리스 수조통은 스테인리스304 재질로 만들어졌다. 내구성과 내식성이 강해 위생적인 주방용품에도 많이 사용되는 재질이다. 녹슬거나 물때가 잘 생기지 않아 세균 번식 위험이 적다. 스테인리스 수조통은 열탕 소독이 가능해 제품 세척을 위해 별도로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수조통은 완전

히 분리돼 일반 컵을 씻는 것처럼 세척이 편리하다. 4.5ℓ 대용량으로 나온 울스텐 초음파 가습기는 시간당 최대 220ml의 가습량을 자랑한다. 분무량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1단계 기준 한 번의 급수로 최대 42시간 연속으로 가습 효과를 준다. 상부 급수 방식으로 분무구만 분리하면 물도 손쉽게 보충할 수 있다. 실내 습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가습량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제품 내 오토 기능을 선택하면 습도가 40% 이하인 환경에서는 분무량이 가장 풍부한 3단으로, 습도가 40~60% 정도일 때는 2단으로, 습도가 60% 이상일 경우 가습량이 가장 적은 1단으로 자동 조절이 된다. 쿠첸은 소음 방지 캡을 적용해 26.6dB(데시



벨)로 최소화했다. 도서관 소음은 40dB이다. 서선욱기자

청정해역 고흥서 2023년산 물김 본격 출하

물김 위판장 개장, '안전조업과 생김풍작' 기원

남해안 다도해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2023년산 물김이 본격적으로 출하에 들어갔다. 20일 고흥군은 전남 도화면 발포위판장에서 안전 조업과 생김 풍작 기원을 위한 2023년산 물김 위판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출하를 시작했다. 올해 물김 채묘 초기 영양염 및 강우량이 부족해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평년 대비 2주 정도 분망과 채취가 지연됐다. 하지만 11월 하순부터 김의 성장과 색상이 점차 양호해져서 올해 물김 생산량도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흥김은 올해 1만211ha에 총 10만2110척이 시설됐으며, 물김 가격은 1포대(120kg)당 최저 10만 9000원에서 최고 15만 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위판장 개장식을 맞아 김 양식 어업인을 격려하며 올해도 작년과 같은 대풍이 이어지길 기원했다. 공 군수는 "고흥산 김은 전국 김밥용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우수한 품질, 특유의 향과 맛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



랑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생김이 많이 생산돼 우리 어업인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장식은 대한민국김밥포럼 의장이며, 고흥군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락훈 셰프가 참석했다. 김 셰프는 "김밥의 세계화, 고흥김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고흥김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고흥군은 명품 고흥김 생산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철저한 병해 예방 및 김 양식 시설 관리 등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세븐일레븐, 캐릭터 열풍 잇는다...'포켓몬 피규어' 예약 주문

'캐릭터 마이키링' 3종(포켓몬, 짱구, 산리오) 누적 판매 300만 개 판매



편의점 캐릭터 열풍이 이어지자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인기 아이템을 모바일 앱(세븐앱)에 서 예약 주문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출시한

'캐릭터 마이키링' 3종(포켓몬, 짱구, 산리오)은 현재까지 누적 판매 300만 개를 넘어섰고, 해당 상품이 속한 '토이캔디' 카테고리의 올해(1월1일~12월19일)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은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해 '포켓몬', '페파피그(Peppa Pig)'의 해외 인기템을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 주문 판매한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편코팝 포켓몬 피규어' 15종과 페파피그 굿즈와 캔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페파피그 서프라이즈 캔디(6입)'다. 세븐일레븐 편코팝 포켓몬 피규어는 미국 완구 제작사 편코(Funko)에서 가장 유명한 시그니처 피규어 시리즈로, 인기 포켓몬 피카츄, 꼬부기, 파이리, 이브이, 뮤, 뮤츠, 망나뇽 등 15종으로 구성됐고 머리가 크고 몸통이 작은 형태다. 장난감과 캔디가 함께 들어 있는 '페파피그 서프라이즈 캔디(6입)'도 판매한다. 달걀 모양의 틴케이스 안에 젤리와 페파피그 캐릭터 토이스탬프 6종, 팔찌 4종) 10종이 무작위로 담겨 있다. 김재환기자



그랜드 조선 제주, 로맨틱 메모리 패키지 출시

입욕제와 스냅사진·캐리커처 등 제공

크리스마스를 맞아 조선포텔앤리조트가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24일과 25일 2박과 입욕제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출시한다. 조선포텔앤리조트는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투숙 한정 스페셜 패키지 로맨틱 메모리를 23일까지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로맨틱 메모리 패키지는 디럭스 풀사이드 객실 숙박과 이탈리아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루브리카에서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디너 2인 혜택, 버블 베스 기프트 프리미엄 입욕제 브랜드 '라퀴베메종'의 샴페인 버블 베스 기프트 등으로 구성했다. 루브리카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디너는 웰컴 샴페인 글래스와 개살 만두 & 토마토 콘소메, 오리가슴살 구이, 도미 아쿠아파자, 한우 안심 구이, 라즈베리 크림 치즈 브라우니 등 5개 코

스 요리를 제공한다. 단 스페셜 디너는 투숙 중 1회만 제공한다. 이외에도 액티비티 팀 '그랑 조이'에션 커플 이벤트와 프로그램, 그랜드 조선 제주 내 크리스마스 포토 스팟 중 한 곳에서 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주는 '미니 커플 스냅 사진 프로그램', 커플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담아주는 '분즉석 커플 캐리커처'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랜드 조선 제주 관계자는 "도심을 떠나 사랑하는 연인 및 가족과 제주에서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연말을 보내고 싶은 고객들을 위하여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패키지와 다채로운 이벤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뉴스

매일유업, '어메이징 오트' 이벤트 개최

연말 선물 이벤트 열고 47명에게 총 1600만원 상당 경품 행사

매일유업이 어메이징 오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맞이 대규모 선물 이벤트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어메이징 오트 연말 선물 이벤트를 열고 47명에게 총 16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선물한다. 경품은 프리미엄 커피머신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스타일 종합 가전 브랜드 '스메그'의 전자동 커피 머신, 밀크 포머, 커피 그라인더 등 휴카페 용품 또는 어메이징 오트 3종과 유리잔 2개로 구성된 어메이징 오트 시

딩 키트 등으로 구성했다. 매일유업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어메이징 오트를 구매하고 직접 구매 확정 처리한 뒤 경품 신청서를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특집 라이브방송에서도 어메이징 오트 시딩 키트를 만나볼 수 있다. 어메이징 오트 시딩 키트는 성수동에서 열린 팝업스토어 '어메이징 오트 카페'의 인기 메



뉴였던 몰트 오트 라떼와 오트 위스키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슬비기자